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홀수형

[1~3] 다음은 수업 중 학생들이 실시한 반대 신문식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찬성 측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국립공원은 지역의 자연과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이에 1990년대 이후 국립공원 내에는 케이블카가 추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탐방의 편의를 위해 케이블카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라가 관리한다.’는 ‘국립’의 뜻에 비추어 볼 때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노약자나 장애인에게도 탐방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의 추가 유치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자연 훼손을 염려하지만, 최근에는 설치 공법이 발달해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보 탐방객들 중 일부를 케이블카가 흡수한다면 등산로 주변의 자연 훼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반대 2: 반대 측 확인 질문 하겠습니다. 공법이 발달해도 인공적인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 수는 없죠?

찬성 1: 음 그렇긴 하죠.

반대 2: 지주, 선로, 정류장을 설치하게 되면 곧 자연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A]

찬성 1: 네. 하지만 설치 과정에서 생기는 훼손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입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대 2: 이상 확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반대 1: 반대 측 입론하겠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자연 환경을 잘 보전하여 후세에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자연 훼손은 불가피합니다. 더구나 등산객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케이블카가 설치되더라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찬성 측이 예상하는 것과 같은 흡수 효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경제적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하셨지만 이는 근거 없는 예측일 뿐입니다. 기대 이익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이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는 국립공원에 더 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1: 찬성 측 확인 질문 하겠습니다. (㉠)
(후략)

1. ‘찬성 1’의 입론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 ① 논제가 사회적 쟁점이 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논제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③ 논제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④ 논제와 관련한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
- ⑤ 논제와 관련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입장과 방안을 짝 지은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산의 경우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 내려서 정상 봉우리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그 결과 새로운 등산로가 생기면서 정상 주변의 원시림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장	활용 방안
①	찬성	설치 공법의 발달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②	찬성	케이블카 설치로 새로운 샛길이 형성되어 탐방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③	반대	정류장의 입지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④	반대	자연 환경의 훼손보다 미관을 해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부각할 때 활용할 수 있겠군.
⑤	반대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생긴다는 점을 들어 환경 훼손의 심각성을 부각할 때 활용할 수 있겠군.

3. [A]를 참고할 때, ㉠에 들어갈 수 있는 확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존 탐방객들이 굳이 돈을 내고 케이블카를 탈까요?
- ② 인공물의 설치가 자연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 ③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의 구체적 근거가 있습니까?
- ④ 국립공원에서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실시하고 있나요?
- ⑤ 노약자나 장애인의 기존 케이블카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5] 다음은 민수와 삼촌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민수: 삼촌, 진로에 대한 조언 고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삼촌을 찾아올 걸 그랬어요. 이메일로만 여쭙 보다
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니 훨씬 좋은데요. ㉠ 궁금한
걸 바로 여쭙 보고 답도 들을 수 있어서요.

삼촌: 그래, 오늘 얘기 도움이 좀 됐니?

민수: 그럼요. 지난번 대학에 다니는 선배에게 비슷한 얘길 들
었을 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 만화가인 삼
촌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 훨씬 분명해졌어요.

삼촌: 그래,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구나. 강바람이 참 좋구나.
좀 더 걸을까?

민수: 네, 좋아요. 상쾌하고 마음도 후련해지네요. ㉢ 좀 전 복
잡한 지하철에선 진로 얘길 하기가 거북했는데, 이렇게
탁 트인 강변에 오니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해 주신 말씀이 이해도 잘 되고요.

삼촌: 응, 그래. 그런데 여기 오니 옛날 생각이 나네. 너만
할 때 고민이 생기면 생각도 할 겸 회수권도 아낄 겸
일부러 여기까지 걸어오곤 했지.

민수: ㉣ 회수권이요? 회수권이 뭐죠?

삼촌: 아, 너희 또래 모르겠구나. 학생들이 쓰는 버스 승차권을
그때 그렇게 말했지.

민수: 아, 네. 그때 삼촌도 저처럼 진로 문제로 걱정이 많으셨던
거예요?

삼촌: 응, 그랬었지. 너처럼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갈등이 많았지.

민수: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말인데요, 사실은 …….

삼촌: 괜찮아. 망설이지 말고 말해 보렴.

민수: 사실 전 아버지를 많이 존경하는데 이 문제로 요즘 좀
서먹해졌어요. 자꾸 피하게 되고 …….

삼촌: 응, 그래. 그러니까 네 말은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버지가 달가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지?

민수: 네, 맞아요. 제가 아버지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삼촌: 전혀 그렇지 않아. 삼촌도 비슷한 과정을 겪어서 네 심정
잘 알아. 그런데 너처럼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민수: 글썄요. ㉤ 친한 애들은 많은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애긴 안 꺼내요.

삼촌: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동안 많이 답답했겠구나.

4. 위 대화에서 ㉠~㉤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에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상호 작용에 기여하는 구두 언어의 특성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말하는 이의 전문성이 전달 내용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공간적 상황이 메시지 전달과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 참여자 사이의 지위 차이가 화제 선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5. 위 대화를 바탕으로 한 ‘학습 활동’의 결과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은 ‘공감하며 듣기’의 방법이다. ‘삼촌’이 사용한 표현 중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그 기능을 정리해 보자.

활동 결과

- ㉠ **감정, 처지에 동조해 주기**
“여기 오니 옛날 생각이 나네.”: 상대방과 공유하는 추억을 떠올리게 해 일체감을 나타냄. ……………①
- ㉡ **관심을 기울이며 격려해 주기**
“망설이지 말고 말해 보렴.”: 상대방이 말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북돋워 줌. ……………②
- ㉢ **듣고 이해한 내용 확인하기**
“그러니까 네 말은 ~말이지?”: 들은 내용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했음을 보여 줌. ……………③
- ㉣ **비판을 하지 않고 지지해 주기**
“전혀 그렇지 않아.”: 상대방의 입장을 옹호해 줌. ……………④
- ㉤ **비언어적 표현 활용하기**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 상대방의 말에 호응을 보임. ……………⑤

6. 다음 ‘원문’을 ‘은영’과 ‘서연’이 각각 요약하였다. 상호 평가 과정에서 ‘서연’이 ‘은영’에게 조언할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원문

나무 연필은 샤프펜슬, 만년필 등 새로운 필기도구들의 도전을 줄곧 받아 왔다. 한때는 타자기가 연필을 밀어낼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컴퓨터가 연필의 종말을 재촉할 것이라는 예측도 뒤따랐다. 하지만 나무 연필은 샤프펜슬, 만년필, 타자기와 컴퓨터의 등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 20세기 중반에 나무 연필은 역대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하여, 미국만 해도 연간 20억 자루가 생산되었다. 연필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필기도구로 사랑을 받고 있다.

‘은영’의 요약문

나무 연필은 새로운 필기도구들의 도전을 줄곧 받아 왔다. 한때는 타자기와 컴퓨터가 연필의 종말을 재촉할 것이라는 예측도 뒤따랐다. 나무 연필은 샤프펜슬, 만년필, 타자기와 컴퓨터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 미국만 해도 연간 20억 자루가 생산되었다. 연필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필기도구로 사랑을 받고 있다.

‘서연’의 요약문

나무 연필은 새로운 필기도구뿐만 아니라 타자기와 컴퓨터의 도전을 받아 왔지만 오늘날까지 대중의 필기도구로 사랑을 받고 있다.

- ① 원문의 중심 문장을 잘 찾아서 선택해야 해.
- ② 원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자기 말로 바꿔 써야 해.
- ③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말고 반복적인 내용을 압축하는 것이 좋겠어.
- ④ 여러 내용을 나열하지 말고 내용 간의 관계가 분명하도록 긴밀하게 연결해야 해.
- ⑤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7~8] <보기 1>은 논설문을 쓰려는 학생의 생각이고, <보기 2>는 활용하려는 자료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1>

오늘 수업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다들 식상해 했어. 그래서 나는 관점을 조금 바꾸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쓰려고 해. 그러려면 먼저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실태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보여 주어야겠지. 그리고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겠지. 결혼할 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결혼 비용,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도 좋을 거야. 이를 통해 결혼이 늦어지는 사회적 원인을 찾으면, 우리 사회에서 노력해야 할 방향도 제시할 수 있어.

<보기 2>

(가) 주택 가격 지수와 결혼 연령

(나) 결혼 연기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

(단위: %)

결혼 연기 이유		남	여
경제적 요인	불안정한 직장	17.8	5.3
	낮은 수입	13.0	7.9
	결혼 비용 부담	19.2	15.8
개인적 성취를 위해서		11.0	10.5
부모나 결혼 상대자의 반대		16.4	17.1
결혼에 대한 두려움		8.9	22.4
기타		13.7	21.0
합계		100.0	100.0

7. <보기 1>과 글의 성격을 고려하여 글쓰기를 계획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제문	○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
논거 자료	○ 연령대별 결혼율에 대한 통계 자료 ① ○ 결혼을 미루는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 자료 ○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결혼 관련 인터뷰 자료 .. ② ○ 결혼 비용 관련 통계 자료 ○ 청년 실업률,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통계 자료
내용 구성 방향	○ 서론: 저출산 문제와 결혼 연기 현상의 관련성을 지적하여 논의의 필요성을 밝힘. ③ ○ 본론: 1.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실태를 제시함. 2.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함. ④ 3. 자료들을 통해 결혼이 늦어지는 사회적 원인들을 분석함. ⑤ 4. 분석한 원인별로 해결 방안을 제시함. ○ 결론: 논의를 종합하며 주제를 강조함.

8. <보기 2>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를 해석할 때는 변화의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 ② (가)는 주택 가격이 결혼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밝힌 후에야 논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가)를 논거로 활용할 때는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 ④ (나)에서 ‘경제적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사회적 요인’으로 묶어서 해석해야 한다.
- ⑤ (나)에서 남녀의 차이가 큰 항목들은 글의 방향과 관련이 없으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다음 그림에 담긴 의미를 글로 써 보자.



과제 수행 기록 나의 글쓰기에 대하여

오늘 작문 과제는 ‘그림에 담긴 의미를 글로 표현하기’였다. 처음에는 왼쪽에 서 있는 두 사람,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 키와 몸무게의 상관성에 관한 그래프 등 그림의 요소만을 나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림 속 상황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중심 내용을 정하여 그림의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다. 그런 후에 과제를 완성하였다.

학생의 글

성급한 일반화의 위험성

어떤 연구원이 사람의 키와 몸무게가 반드시 정비례한다고 주장하였다. ㉠ 그는 키와 몸무게가 비례한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키가 클수록 필연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키가 작을수록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과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 이 ㉡ 학자를 찾아왔다. ㉢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있었다. 연구원은 두 사람을 보는 순간 ㉣ 생각다 못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키와 몸무게에 관한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 오히려 충분한 사례를 검토하지 않고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9. ‘과제 수행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사용한다.
- ② 글로 표현하려고 하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 ③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한다.
- ④ 대상의 특징이나 모습을 공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한다.
- ⑤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여 글감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앞 문장과 의미가 중복되므로 삭제한다.
- ② ㉡은 하나의 글 안에서 지칭을 다르게 쓰고 있으므로 ‘연구원’으로 통일한다.
- ③ ㉢은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문장 내에서 ‘당황하다’와 의미상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 ⑤ ㉤은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하므로 ‘그런데’로 바꾼다.

11. (가)는 수업 게시판에 올라온 발음 관련 질문들이다. 답변할 때 (나)를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가)

- ㄱ. ‘여덟이, 여덟이야’의 표준 발음은 무엇인가요?
- ㄴ. ‘육학년’은 ‘[유강년]’이 맞나요, ‘[유강년]’이 맞나요?
- ㄷ. ‘겉으로’를 ‘[거초로]’로 발음하면 왜 틀리나요?
- ㄹ. ‘빛이, 빛은’을 ‘[비시], [비슨]’으로 발음해도 괜찮나요?
- ㅁ. ‘낮’은 ‘밤낮으로’에서와 ‘낮일’에서의 발음이 왜 다른가요?

(나)

‘연음’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미사가 올 때 앞 음절의 종성이 그대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가는 현상을 말한다. 가령 ‘앞’에 조사 ‘이’가 결합할 때 ‘[아피]’로 발음되는 것이 대표적인 연음의 예이다. 연음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표준 발음 여부를 판정할 때 매우 중요하다. ‘부엌이, 부엌은’을 흔히 ‘[부어기], [부어근]’으로 발음하는데, 이것은 연음을 따르지 않아서 생긴 잘못된 발음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12.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 ㉡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 소리대로 적되, ㉡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생님의 설명: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이 근본 원칙이에요. ‘구름, 나라, 하늘’ 등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예이지요. 그런데 이 원칙만 따른다면 ‘밥’과 같은 단어는 뒤에 오는 말에 따라 ‘바비(밥+이), 밥또(밥+도), 밤만(밥+만)’처럼 여러 가지로 표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형태를 알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독서의 능률도 크게 떨어지지요. 이 때문에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키는 방법, 즉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을 추가한 거예요.

- ① ‘먹어, 먹은’은 어간과 어미를 분리해서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② ‘굳이, 같이’는 음운 현상을 반영하지 않고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③ ‘퍼서(푸+어서), 폼다(푸+었다)’는 어간을 원래 형태에서 벗어난 대로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④ ‘미답다, 우습다’는 어간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⑤ ‘노인(老人)’과 ‘원로(元老)’는 같은 한자를 ‘노’와 ‘로’로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13. 다음은 틀리기 쉬운 문장 표현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적절하게 고쳐 쓴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문장 성분 간의 호응 문제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예)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예) 이것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였던 것이다.
 ⇒ 이것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

(나) 중의적인 문장의 문제

- 접속 표현에 의한 것
 (예) 민수와 진희는 결혼을 했다. [둘이 부부인 경우]
 ⇒ 민수는 진희와 결혼을 했다.㉢
- 수식 구조에 의한 것
 (예) 귀여운 영화 친구가 놀러 왔다. [친구가 귀여운 경우]
 ⇒ 귀여운 영화의 친구가 놀러 왔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4.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표현하는 방식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보 기>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밥을 먹으러 가고 싶을 때, “밥 먹으러 가자.”처럼 청유형 어미 ‘-자’를 사용하여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벌써 점심 시간이네.”처럼 평서형 어미 ‘-네’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 ① (귀가한 후 누나에게)
 동생: ㉠ 아, 목마르다.
 누나: 자, 물 여기 있어.
- ② (추운 교실에서 창가에 앉은 학생에게)
 선생님: ㉡ 창문이 열렸네.
 학생: 네, 닫을게요.
- ③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모를 때)
 행인 A: ㉢ 구청에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행인 B: 오른쪽 모퉁이를 돌아가면 돼요.
- ④ (옷을 빌려 달라는 동생에게)
 언니: ㉣ 너 나한테 맡겨 둔 옷 있니?
 동생: 알았어. 내 옷 입을게.
- ⑤ (추운 겨울, 실내로 들어오는 선생님을 맞이하면서)
 제자: 선생님, ㉤ 여기 따뜻한 차입니다.
 선생님: 그래, 잘 마실게.

15. 다음의 ㉠에 제시된 파생 접사들을 이용하여 새말을 만든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새말을 만들 수 없다면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도 부를 수 없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새말을 만드는 능력이 있지요. 만일 선생님이 ‘웃보’라는 새말을 만들었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호: 잘 웃는 사람일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보’는 어떤 특성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파생 접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물에는 쓸 수 없어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파생 접사에는 ‘-보’ 외에 ‘-지기, -꾸러기, -장이’도 있는데 각각 쓰임이 달라요. 이 접사들의 뜻에 맞게 새말을 만들어 봅시다.

㉠

- 지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꾸러기: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장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①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행지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② 산에 자주 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산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③ 노래를 멋있게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노래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④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농담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⑤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과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16. <보기>를 읽고,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의미 변화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랏 ㉠ 말쑤미 中興國祚에 달아 文문字종와로 서르 스몓 디 아니홀썬 이런 전츠로 ㉡ 어린 百百姓성이 니르고져 흥배 이셔도 ㅁ츄내 제 ㅼ들 시러 퍼디 문흥 ㉢ 노미 ㉣ 하니라 내 이룰 爲嬴호야 ㉤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덟 字종을 땡 ㅁ노니 사롭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ㅼ메 便便安한크 흥고져 흥 썩르미니라

-『훈민정음』 언해, 세조 5년(1459) -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도록 할 따름이다.

- ① ㉠의 ‘말쑤’는 ‘말’을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말쑤’는 남의 말을 높여 이르거나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을 뜻하니까 의미 확대의 예야.
- ② ㉡의 ‘어리다’는 ‘어리석다’를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어리다’는 ‘나이가 적다’를 뜻하니까 의미 축소의 예야.
- ③ ㉢의 ‘놈’은 ‘사람’을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놈’은 남자를 낮잡는 의미로 쓰이니까 의미 확대의 예야.
- ④ ㉣의 ‘하다’는 ‘많다’를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하다’는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란 뜻이니까 의미 축소의 예야.
- ⑤ ㉤의 ‘어엿쁘다’는 ‘가엾다’를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예쁘다’는 ‘모양이 작거나 섬세하여 눈으로 보기에 좋다’란 뜻이니까 의미 이동의 예야.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석가탑은 석조 예술품이면서도 기둥과 지붕 모양을 갖추어 목탑의 외관을 보여 준다. 또한 수십 개의 석재들이 정교하게 하나의 구조물로 짜 맞추어져 있어 정치한 아름다움을 보인다. 그리하여 석가탑은 구조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석탑 양식의 정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완성도가 높아 이후 세워진 석탑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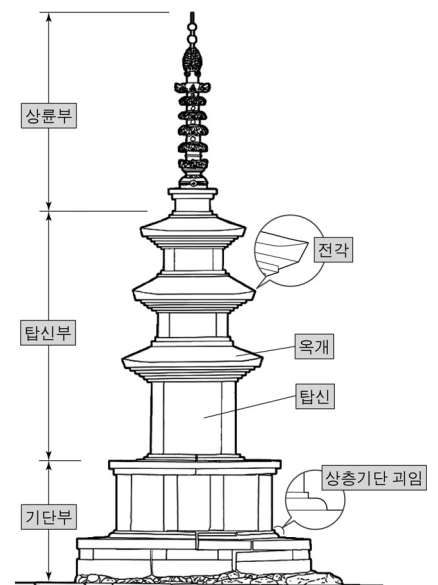
석가탑은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단부의 하층은 낮지만 넓게, 상층은 다소 좁지만 높게 구성되어 있어 안정감을 준다. 한편 상층기단 괴임의 하단 모서리는 둥글게, 상단 모서리는 각지게 변화를 주어 율동감을 느끼게 한다.

탑신부는 3층으로, 각 층은 탑신과 옥개로 구성되어 있다. 탑신과 옥개는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폭과 높이가 줄어들도록 만들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균제미가 드러난다. 특히 1층과 2층

탑신 높이의 비례가 3:1로 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준다. 또 살며시 추켜올려진 옥개의 전각은 직선 중심의 강한 외관을 반전시키고, 전체 이미지에 유려함과 경쾌함을 더하고 있다.

상륜부는 원래의 것이 남아 있지 않다. 현재의 상륜부는 동시대에 제작된 다른 석탑의 것을 본떠 새롭게 만든 것인데, 연꽃이 장식된 석재들이 쌓아 올려진 형태는 상승감을 자아낸다.

석가탑은 화려함을 절제시켜 전체적인 조형미가 더 잘 드러나도록 만들어진 걸작이다. 석가탑이 가지는 이러한 아름다움을 통해 옛사람들의 뛰어난 안목과 미감, 그리고 세련된 기교와 견실한 힘을 느낄 수 있다.



석가탑의 구조

17. 위 글에 나타난 ‘석가탑’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기단부와 탑신부, 탑신과 옥개가 서로 잘 어울려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
- ② 석재들을 정교하게 짜 맞추어 하나의 구조물로서 완성도를 높였다.
- ③ 기단부는 상층으로 갈수록 폭과 높이를 줄여 상하 균형을 맞추었다.
- ④ 직선적 미감에 곡선미를 가미한 세련된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석재로 조성했지만 양식적으로는 목탑적 요소도 갖추었다.

18. 위 글에서 글쓴이가 활용한 예술품 감상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족성이나 지역적 특성에 주목하여 형식적 실험성과 창의성을 살핀다.
- ② 조성 시기와 배경에 주목하여 작품의 공간적 배치와 실용적 가치를 살핀다.
- ③ 종교적인 상징과 의미에 주목하여 작품에 구현된 당대의 세계관을 살핀다.
- ④ 조형적인 특징과 예술적인 표현 기법에 주목하여 작품의 미술사적 가치를 살핀다.
- ⑤ 감동이나 교훈적 측면에 주목하여 작가의 가치나 정신세계와의 관련성을 살핀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식적으로는 자신에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대로 세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회의론에서는 그 보고 듣고 느끼는 세계가 모두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옹호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회의론은 근세 철학의 창시자인 **데카르트**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그는 의심이 전혀 불가능한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 체계적으로 의심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즉 의심할 수 있는 이유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의심해 보는 것이다.

그가 의심한 첫 번째 범주의 지식은 감각에 의해 생긴 지식이다. 휴대 전화가 없는데도 벨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 것처럼, 감각은 우리를 종종 속이므로 감각적인 증거를 토대로 생긴 지식은 믿을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는 사실까지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이에 대해서도 데카르트는 꿈에서 똑같은 종류의 감각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사실 나는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감각적인 증거를 토대로 생긴 지식은 믿을 수 없다.

감각적 지식만이 지식의 전부는 아니다. 예컨대 우리의 지식 중 수학의 지식은 감각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데카르트의 의심에서 무사히 벗어날지 모른다. 내가 깨어 있을 때나 꿈속에서나 2 더하기 3은 5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수학의 지식마저도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악마가 존재하여 사실은 2 더하기 3은 4인데 우리가 2에 3을 더할 때마다 5인 것처럼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악마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는다면 상상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아무리 의심을 해도 의심하는 사람의 존재에 관한 의심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악마도 그를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의심하고 있다면 그는 존재함에 틀림 없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 자신의 존재는 그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찾은 이러한 존재의 확실성의 토대는 그리 튼튼한 것 같지 않다. 그의 결론대로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생각하는 ‘나’가 항상 같은 ‘나’라는 보장이 있을까? 생각하는 ‘나’가 존재한다고 하면 지금 생각하는 ‘나’와 5분 전에 생각하던 ‘나’는 똑같은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5분 전에도 ‘지금의 나’가 생각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지금 생각하는 ‘나’와 5분 전에 생각하던 ‘나’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데카르트의 체계적 의심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좀 더 철저히 의심하면 영속적인 나의 존재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는 회의를 시작했지만 **철저한 회의론자**가 되지는 못했다.

19. 위 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학자가 의심하는 명제가 다른 학자들에게는 확실한 명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 ②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체계화된 이론을 정립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 ③ 상식적인 개념을 제시한 후 그 개념을 분석하여 대립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 ④ 어떤 학자가 주장한 이론을 소개하고 그 이론이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 ⑤ 대립하는 두 이론의 장점만을 취하여 하나의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20. 위 글의 ‘데카르트’와 ‘철저한 회의론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꿈속의 지식 중에는 감각적 지식이 아닌 것도 있다.
 ㄴ. 어떤 지식을 상상만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 그 지식은 확실하지 않다.
 ㄷ. 의심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서 의심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ㄹ.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의심할 수 있다.
 ㅁ. 영속적인 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ㄹ, ㅁ
- ⑤ ㄴ, ㄹ, ㅁ

2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나의 뇌가 몸에서 분리되어 양분이 공급되는 큰 통 안에 둥둥 떠 있고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통 속의 뇌’에서는 나의 경험을 모두 컴퓨터가 조작해 내고 있다. 가령 나는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컴퓨터가 만들어 낸 환상이다.

- ① ‘통 속의 뇌’와 같은 상황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의심한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겠군.
- ② ‘통 속의 뇌’의 세계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실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
- ③ ‘통 속의 뇌’를 조작하는 컴퓨터는 데카르트가 말한 ‘악마’에 해당하겠네.
- ④ ‘통 속의 뇌’의 세계에서는 2 더하기 3이 4이면서 동시에 5이겠어.
- ⑤ 우리도 그런 ‘통 속의 뇌’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겠군.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 계층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상·중·하의 세 층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중간층은 상·하층 사이의 완충 지대로서, 사회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개인이 느끼는 계층적 소속감을 계층 귀속 의식이라고 하는데, 중간층 귀속 의식이 하층으로 확산될수록 사회는 그만큼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중간층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산업 자본주의 이전에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가를 중심으로 중간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산업 자본가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중간층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층으로 몰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사회 안정이 위협 받게 되자,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 보장 제도를 도입하여 위기에 대처하려고 하였다.

20세기에 접어들어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급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중간 관리자나 사무직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중간층의 주축으로 성장하였다. 물론 대량 생산되던 내구성 상품에 대한 소비가 급감하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대량 실업에 의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여 중간층이 위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대규모 공공 투자 정책으로 실업이 완화되면서 위기는 해소되었다. 또한 최저 임금제의 실시에 따라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대량 소비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 결과 중간층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체제를 이끌며 20세기 중반까지 사회 안정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회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기업은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 자동화와 자동화된 생산 시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지 못한 노동자와 중간층은 위기 상황으로 내몰렸고 이로 인해 다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기대 수준과 현실의 괴리가 빚어내는 상대적 박탈감이 중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하층에서의 중간층 귀속 의식도 약화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 위기의 해법을 찾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각 사회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 안전망을 보강할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양극화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연한 상황 적응력을 갖추면서도 강자의 양보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추구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4.0’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22.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사회 계층과 관련된 문헌을 근거로 중간층의 사회적 기능을 논증하였다.
- ② 중간층의 기능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반박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 ③ 중간층의 심리적 특성을 도출하여 중간층 귀속 의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 ④ 자본주의의 흐름에 따른 중간층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 ⑤ 객관적 사례를 제시하여 중간층과 관련된 이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3. 위 글에서 설명한 ‘양극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세기 중반 이후 일부 국가에서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 ③ 19세기 후반에는 산업 자본가에 대한 중간층의 경쟁력 약화 때문에 나타났다.
- ④ 20세기 후반에는 19세기 후반의 경우와는 다른 직업군에서 나타났다.
- ⑤ 20세기 후반에는 생산 및 사무 자동화의 확대에 대처하지 못해서 나타났다.

24. 위 글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중간층을 확대하고 중간층 귀속 의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 ②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중간층과 하층의 기대 수준을 다소 낮추도록 해야 한다.
- ③ 중간층과 하층이 보다 상위의 계층 귀속 의식을 갖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 ④ 중간층의 위기 현상은 어쩔 수 없지만 중간층 귀속 의식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 ⑤ 사회의 각 구성원이 계층적 지위와 계층 귀속 의식을 일치시키며 본분을 지켜야 한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태양은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빛과 열을 공급해 준다. 이런 막대한 에너지를 태양은 어떻게 계속 내놓을 수 있을까?

16세기 이전까지는 태양을 포함한 별들이 지구상의 물질을 이루는 네 가지 원소와 다른, 불변의 ‘제5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밝기가 변하는 신성(新星)*이 별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별이 불변이라는 통념은 무너지게 되었다. 또한 태양의 흑점 활동이 관측되면서 태양 역시 불덩어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후 섭씨 5,500도로 가열된 물체에서 노랗게 보이는 빛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유사한 빛을 내는 태양의 온도도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었다.

19세기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확립되면서 ㉡새로운 에너지 공급이 없다면 태양의 온도가 점차 낮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태양의 온도가 훨씬 높았어야 했고, 지구의 바다가 펄펄 끓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태양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에너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20세기 초에 방사능이 발견되면서 방사능 물질의 붕괴에서 나오는 핵분열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원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태양에는 우라늄 등의 방사능 물질 대신 수소와 헬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방사능 물질의 붕괴에서 나오는 핵분열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원은 아니었던 것이다.

㉢현재 태양의 에너지원은 수소 원자핵 네 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로 융합하는 과정의 질량 결손으로 인해 생기는 핵융합 에너지로 알려져 있다. 태양은 엄청난 양의 수소 기체가 중력에 의해 뭉쳐진 것으로, 그 중심으로 갈수록 밀도와 압력, 온도가 증가한다. 태양에서의 핵융합은 천만 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중심부에서만 일어난다. ㉤높은 온도에서만 원자핵들이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며, 그 결과로 원자핵들 사이의 반발력을 극복하고 융합되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로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빛이 핵융합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은 태양으로부터 온 중성미자가 관측됨으로써 더 확실해졌다.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 핵융합 에너지가 늘어나면 그 에너지로 인한 압력으로 수소를 밖으로 밀어내어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를 낮추게 된다.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면 방출되는 핵융합 에너지가 줄어들며, 그 결과 압력이 낮아져서 수소가 중심부로 들어오게 되어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를 다시 높인다. 이렇듯 태양 내부에서 중력과 핵융합 반응의 평형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태양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빛을 낼 수 있게 된다. 태양은 이미 50억 년간 빛을 냈고, 앞으로도 50억 년 이상 더 빛날 것이다.

* 신성: 갑자기 환히 빛났다가 얼마 후 다시 희미해지는 별.

25. 위 글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하였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문 1. 태양빛의 근원은 무엇일까?

○ 제5 원소설: 신성 관찰로 인정됨.①

○ 불덩어리설: 흑점의 관찰로 제안됨.②

질문 2. 태양이 계속 식어 왔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 수천 년 전 아주 뜨거움: 과거 지구의 기후와 부합하지 않음.③

질문 3. 태양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올까?

○ 핵분열 에너지설: 스펙트럼 분석 결과 부정됨.④

○ 핵융합 에너지설: 태양 중성미자의 관측으로 인정됨.⑤

26. ㉠~㉦이 참이라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뜨거운 물체는 온도에 따라 주로 내는 빛의 색이 다르다.
 ② ㉡: 열을 내는 물체는 에너지 공급이 없을 때 온도가 내려간다.
 ③ ㉢: 물체의 질량은 다른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다.
 ④ ㉣: 융합 전까지 원자핵들 사이에는 반발력이 존재한다.
 ⑤ ㉤: 온도가 일정하면 기체의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

27. 위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기>의 ‘핵융합 장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3점]

태양의 원리를 적용한 대체 에너지 기술은 수소 원자핵을 초고온 상태로 만들어 수소 원자핵들이 빠른 속도로 자주 충돌할 수 있도록 밀도를 높여 주면 가능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소 원자핵을 초고온 상태로 지속시킬 수 있는 ‘핵융합 장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① 밀도가 높으면 온도가 낮아도 원자핵들이 핵융합을 할 수 있겠군.
 ② 지구에서 구하기 쉬운 방사능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군.
 ③ 초고온 상태를 유지하려면 태양 중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힘이 필요하겠군.
 ④ 태양 표면과 같은 환경을 마련해 주려면 엄청난 양의 수소를 핵분열시켜야겠군.
 ⑤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중력과 핵융합 반응의 평형 상태를 깨뜨리는 것이 관건이겠군.

28. ㉣, ㉥와 관련하여 <보기>의 사례가 될 수 없는 것은?

국어의 어휘 중에는 ‘유지하다-유지되다’처럼 명사인 ‘유지’가 ‘하다’와 결합하면 타동사, ‘되다’와 결합하면 자동사가 되어 구별되는 용법으로 쓰이는 예가 많다.

① 관통(貫通) ② 보존(保存) ③ 완공(完工)
 ④ 발열(發熱) ⑤ 개편(改編)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를 할 때에는 결코 의문만 일으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마음을 평온하게 갖고 뜻을 오롯이 하여 글을 읽어 가도록 한다. 그리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의문이 생기거든 되풀이하여 궁구하도록 한다. 이 경우 글에만 의거하지 말고 혹 일을 했던 경험으로 깨닫기도 하고 혹 노니는 중에 구하기도 하는 등, 무릇 다닐 때나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수시로 궁구할 일이다. 이렇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통하지 못할 것이 별로 없다. 또 설사 통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처럼 스스로 먼저 궁구한 후에 남에게 묻는다면 말을 듣자마자 깨달을 수 있다.

독서를 할 때 목소리만 높여 허세를 부리거나, 어지럽게 글을 읽고, 억지로 자구를 뽑아내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의문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 대답하는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나치고 돌아보지 않으며, 한 번 묻고 한 번 대답하는 것으로 다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익을 구하는 데에 뜻이 없는 자이니 더불어 학문을 할 수 없다. (중략)

나는 일찍이 “내 생각으로 남의 뜻을 헤아려 본다.[以意逆志]”라고 한 맹자의 말을 글 읽는 비결로 삼았다. 옛사람의 글에는 올바른 도리나 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편을 짓는 방법이나 기승전결과 같이 글을 구성하는 방법 등 사소한 것들까지도 말해 두었다. 이제 내 생각으로 옛사람의 뜻을 헤아려, 서로 하나로 합해져 간격이 없고 주객이 합치되면 이는 옛사람의 정신과 식견이 내 마음에 사무쳐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비유컨대 곳을 할 때 신이 내리면 무당은 자기가 모르던 것을 환하게 알게 되지만 그것이 어디서 유래하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 이처럼 옛사람의 문장에 기대거나 옛사람의 목은 자취를 좇지 않고 변화시켜 근본을 캐다면, 나 역시 옛사람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읽은 뒤에라야 비로소 오묘한 이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홍대용, 「매헌(梅軒)에게 씀」 -

29. 위 글의 필자인 ‘A’와 <보기>의 필자인 ‘B’의 독서 태도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를 한다. 취업이나 시험, 면접 등을 준비할 때에 그와 관련된 책을 선택하여 읽는다. 또 새로 구입한 전자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제품을 작동하기도 한다. 이로 보아 독서는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 ① A는 B에 비해 목적에 따른 선택적 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
- ② A는 B에 비해 세부 정보 파악에 치중하는 독서를 역설하고 있군.
- ③ B는 A에 비해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독서를 선호하고 있군.
- ④ B는 A에 비해 사물의 원리를 깨우치기 위한 독서를 중시하고 있군.
- ⑤ B는 A에 비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를 강조하고 있군.

30.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면 끊임없이 생각하여 답을 얻도록 해야 한다.
- ② 개괄적인 내용 파악을 통한 예측하거나 질문 만들기를 하면서 읽어야 한다.
- ③ 정신을 가다듬고 정밀하게 볼 수 있도록 집중하여야 한다.
- ④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주장을 헤아리면서 읽어야 한다.
- ⑤ 글의 형식적 측면까지 고려하며 읽어야 한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놀부가 생난리를 한바탕 치르고 정신을 차려 또 동산으로 치달아 보니 박 두 통이 그저 남았거늘 한 통을 또 따 가지고 내려와 찌보를 달래는 말이,

“이애 찌보야, 내 일을 불쌍히 여겨라. 재물을 얻으려 하다가 많은 가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구나. 설마 박통마다 그러하랴. 이번은 무슨 수가 있을 듯하니 아무 말도 말고 켜 보자.”

찌보 응낙하고 박을 켜다.

“㉠슬근슬근 톱질이야. 당겨 주소 톱질이야. 이 박은 켜거든 금은보화가 함부로 나와 흥부같이 살아 보리라.”

놀부 계집이 켜다가 하는 말이,

“다른 보화는 많이 나오되 흥부 아주버니같이 첩은 행여 나오지 마옵소서.”

놀부 꾸짖는 말이,

“가산 탕진하고 상거지가 된 인물이 샘이 어디서 나오는고? 소사스러이* 굴지 말고 한편 구석에 가 있으라.”

하고 밀거니 당기거니 슬근슬근 타며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 이번은 아무 소리도 없는지라 놀부가 대희(大喜)하여 찌보더러 왈,

“이번은 다 켜도 아무 소리가 없으니 아마 수가 있는 박이라.”

하고 급히 타며 보니 박 속에 아무것도 없고 다만 평평한 박뿐이어늘 놀부 대희할 즈음에 찌보가 생각하니,

‘여러 통마다 탈이 났으니 이 박인들 어찌 무사하랴.’

하고 소피하러 가는 체하고 도망질하니 놀부가 찌보를 기다리다 못하여 박통을 도끼로 쪼개 놓고 보니 아무것도 없고 허연 박속이 먹음직하거늘 제 아내를 불러 왈,

“이 박은 먹음직하니 우선 배고픈데 국이나 끓여 집안 식구들과 먹고 기운 나거든 남은 박은 우리 둘이 타 볶세. ㉡옛사람이 이르기를 고진감래(苦盡甘來)라 하였으니 그만치 굶기었으니 필경은 좋은 일이 있지 하를 뜻이 무심할 리가 있나. 술한 재물을 얻을진대 초년고생은 면하기 어려운 것이니 어서 국이나 끓이소.”

놀부 계집이 기뻐하여 박속을 숭덩숭덩 썰고 양념을 갖추어 큰 솥에 물을 넉넉히 붓고 통장작을 지피어 쇠옹두리* 고듯이 만나 절을 무르녹게 끓인 후 온 집안 식구대로 한 사발씩 달게 먹은 후 놀부는 ㉢배가 붓긔하여 게트림*을 하며 계집더러 하는 말이,

“그 국맛이 매우 좋다 당동.”
놀부 계집이 대답하되,
“글쎄요. 그 국이 매우 유명하오 당동.”
놀부 자식들이 어미를 부르면서,
“이 국맛이 좋소 당동.”
놀부 하는 말이,
“㉔ 그 국을 먹더니 말끝마다 당동당동 하니 가장 고이하도
다 당동.”
놀부 처가 대답하되,
“글쎄요. 나도 그 국을 먹더니 당동 소리가 절로 나오 당동.”
놀부 자식이,
“여보 어머니, 우리들도 그 국을 먹더니 당동 소리가 절로
나오 당동.”
“오냐, 글쎄 그러하다 당동.”
놀부가 꾸짖어 왈,
“너는 요망시리 구지 마라 당동. 무슨 국을 먹었다고 당동
하리 당동.”
놀부 계집은,
“그 말이 옳소 당동.”
놀부 딸도 당동, 아들도 당동, 머슴아이도 당동, 놀부 아주미도
당동, 온 집안이 모두 당동당동, 무슨 ㉕ 가야금 뜯고 풍류하는
것처럼 그저 당동당동, 서로 나무라며 당동당동, 이렇듯이
당동당동 하니 담 너머 왕 생원이 들은즉 놀부 집에서 별별
야릇한 풍류 소리가 나거늘 왕 생원이 곧 놀부를 불러 묻는
말이,
“여봐라 놀부야. 너희가 무엇을 먹었길래 그런 소리를 하느냐?”
놀부가 여쭙기를,
“소인의 집에서 박을 심었더니 박이 열리어 국을 끓여 먹었
더니 그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당동.”
생원이 믿지 아니하여 왈,
“네 말이 터무니없도다. 박국을 먹었기로 무슨 그러할 리가
있으랴. 그 국 한 사발만 떠 오너라.”
놀부 국 한 그릇을 떠다 주니 생원이 받아 맛을 보매 국맛
이 가장 아름다운지라. 그 국을 달게 먹고,
“여봐라 놀부야. 그 국맛이 유명하구나 당동. 아차 나도 당
동, 어찌서 당동 하느냐? 당동.”
하며 또 당동당동 소리가 절로 나거늘 생원이 국 먹은 것을
뉘우쳐 놀부를 꾸짖고 당동당동 하며 제 집으로 돌아간 후 놀
부 역시 신세를 생각하니,
‘부자가 될 양으로 박을 심었다가 많은 재산을 다 없애고
전후에 없는 고생과 매 맞은 일이며 끝에 와서는 온 집안사람
이 당동 소리로 병신이 되니 이런 분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으리오.’

- 작자 미상, 『홍부전』 -

- * 소사스럽다: 보기에 행동이 줌스럽고 간사한 데가 있다.
- * 쇠옹두리: 소의 정강이뼈.
- * 케트림: 거만스럽게 거드름을 피우며 하는 트림.

31.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놀부’는 타인을 대할 때와 달리 가족에게 권위적인 자세를 취한다.
- ② ‘놀부 처’는 가족의 의견에 동조적이지만 불편한 속내를 비치기도 한다.
- ③ ‘놀부 자식들’은 어머니의 의견에 동조하여 차별화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 ④ ‘째보’는 기회주의적 인물로서 주인을 배반할 만큼 탐욕스럽다.
- ⑤ ‘왕 생원’은 궁금함을 건디지 못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봉변을 당한다.

32. ㉑~㉕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㉑: 리듬감 있는 표현으로 인물들의 기대감을 노출시켜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㉒: 관용적인 표현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인물의 태도를 쉽게 이해하게 한다.
- ③ ㉓: 사실적인 인물 묘사로 친근감을 유도하여 인물에 대한 동정심을 자아낸다.
- ④ ㉔: 인물이 제어할 수 없는 표현이 반복되어 상황을 희화화한다.
- ⑤ ㉕: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비유로 반어적인 효과를 낳아 웃음을 유발한다.

33. 위 글을 <보기>와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17세기 초반에 창작된 『돈키호테』에서, 주인공 돈키호테는 중세의 기사도 이야기에 빠져 세상의 부정을 바로잡고 학대당하는 사람을 돕겠다며 모험에 나선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16세기 서구 사회에 유행한 기사도 이야기에서 사랑에 빠지고 모험에 나서던 기사를 패러디하고 있다. 여기서 돈키호테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만을 고집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 ① 돈키호테와 놀부는 각각 중세 기사와 양반 지배층의 전형적 인물이다.
- ② 돈키호테와 놀부는 환상에 빠져 이상적 세계의 재건을 모색하는 인물이다.
- ③ 돈키호테는 사회의 혁신을 추구하고, 놀부는 개인의 변혁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 ④ 돈키호테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여, 놀부는 세속적 욕망에 빠져 풍자의 대상이 된다.
- ⑤ 돈키호테는 세속적 가치를 내세워, 놀부는 정신적 가치를 거부하여 현실과 대립한다.

[34~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쑥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漁村)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지국충(至芻僇) 지국충(至芻僇) 어스와(於思臥)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간 고기 뛰노는다

<춘(春) 4>

넌넝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단 드러라 단 드러라

청약립(靑簫笠)은 씨 잇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나

지국충(至芻僇) 지국충(至芻僇) 어스와(於思臥)

㉡ 무심(無心)흔 빅구(白鷗)는 내 좇논가 제 좇논가

<하(夏) 2>

㉢ 슈국(水國)의 ㄱ올히 드니 고기마다 술져 인다

단 드러라 단 드러라

만경딩파(萬頃澄波)*의 슬크지 용여(容與)ᄒ자*

지국충(至芻僇) 지국충(至芻僇) 어스와(於思臥)

인간(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추(秋) 2>

㉣ 믄 ㄱ의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식식ᄒ고

비 밋여라 비 밋여라

머흔* 구름 ᄒ(恨)티 마라 세상(世上)을 ㄱ리온다

지국충(至芻僇) 지국충(至芻僇) 어스와(於思臥)

㉤ 파랑성(波浪聲)*을 ᄒ(厭)티* 마라 딘ᄒ(塵喧)*을 막논또다

<동(冬) 8>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 닛: 내외. ‘내’는 바닷가에 자주 나타나는 안개와 같은 현상.

* 만경딩파: 넓게 펼쳐진 맑은 물결.

* 용여ᄒ자: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놀자.

* 머흔: 험하고 사나운.

* 파랑성: 물결 소리.

* ᄒ티: 싫어하지.

* 딘ᄒ: 속세의 시끄러움.

3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음을 사용하여 흥취를 북돋우고 있다.
- ②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시적 배경이 되는 공간을 이상적 세계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 ‘벽구기’의 울음소리는 봄의 애상감을, ‘버들쑥’의 푸르름은 깊어가는 봄을 보여 준다.
- ② ㉡: 세속에 ‘무심’한 ‘빅구’를 동경하여 화자와 대상 사이에 거리감이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 살 오른 ‘고기’는 자연의 풍성함과 화자의 여유롭고 넉넉한 정신세계를 보여 준다.
- ④ ㉣: 외로운 ‘술’을 씹씹하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보여 준다.
- ⑤ ㉤: ‘파랑성’과 ‘딘ᄒ’을 대비하여 속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 준다.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차가 남대문에 닿았다. 아직 다 어둡지는 아니하였으나 사방에 반작반작 전등등이 켜졌다. 전차 소리, 인력거 소리, 이 모든 소리를 합한 ‘도회의 소리’와 넓은 플랫폼에 울리는 나막신 소리가 합하여 지금까지 고요한 자연 속에 있던 사람의 귀에는 펍 소요하게 들린다. ‘도회의 소리!’ 그러나 그것이 문명의 소리다. 그 소리가 요란할수록 그 나라가 잘된다. 수레바퀴 소리, 증기와 전기 기관 소리, 쇠마차 소리……. 이러한 모든 소리가 합하여서 비로소 찬란한 문명을 낳는다. 실로 현대의 문명은 소리의 문명이라. 서울도 아직 소리가 부족하다. 종로나 남대문통에 서서 서로 말소리가 아니 들리리만큼 문명의 소리가 요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쌍하다. 서울 장안에 사는 삼십여 만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 소리의 뜻을 모른다. 또 이 소리와는 상관없이 그네는 이 소리를 들을 줄을 알고, 듣고 기뻐할 줄을 알고, 마침내 제 손으로 이 소리를 내도록 되어야 한다. 저 플랫폼에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이 분주한 뜻을 아는지, 왜 저 전등이 저렇게 많이 켜지며, 왜 저 전보 기계와 전화 기계가 저렇게 불분주야하고 때각거리며, 왜 저 홍물스러운 기차와 전차가 주야로 달아나는지……. 이 뜻을 아는 사람이 몇몇이나 되는가.

㉠ 이렇게 북적북적하는 속에 영채는 행여나 누가 자기의 얼굴을 볼까 하여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병욱은 혹 자기의 동창 친구나 만날까 하고 플랫폼에 내려서 이리저리 거닐다가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도로 차실로 들어오려 할 적에 누가 어깨를 치며,

“병욱 언니 아니야요?” 한다.

병욱은 놀라 돌아서며 자기보다 이태를 떨어졌던 동창생을 보았다.

“에그, 얼마 만이여!”

“그런데 어디로 가요?”

“지금 동경으로 가는 길인데…….”

“왜, 어느 새에…… 여보, 그런데 좀 만나 보고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정하오” 하고 썩 돌아서더니, “아 무려나 내립시오.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한다.

“아니오. 동행이 있어서…… 그런데 누구 작별 나왔소?”

“응, 아니, 언니 모르세요?”

“무엇을?”

“에그, 저런! 저 선형이 알지요. 선형이가 오늘 미국 떠난다오”

“선형이가 미국?” 하고 놀란다. 그 여학생은 저편 이등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선 것을 가리키며,

“저기 탔는데…… 이번에 혼인해 가지고 양주가 미국 공부 하러 간다오. 잘들 한다. ㉠ 다 미국을 가느니 일본을 가느니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썩는구먼!”

병욱은 여학생을 따라 선형이가 탔다는 차 앞에까지 갔으나 너무 사람이 많아서 곁에 갈 수가 없다. ㉡ 선형은 하얀 양복에 맨머리로 창 밑에 서서 전송 나온 사람들의 인사를 대담하고 그 곁 창에는 어떤 양복 입은 젊은 신사가 그 역시 연해 고개를 숙여 가며 무슨 인사를 한다. 전송인은 대개 두 패로 갈려서 한편에는 여자만 모이고, 한편에는 남자만 모여 섰다. 그 남자들은 모두 다 서울 장안의 문명하였다는 계급이다. 병욱은 한참이나 그것을 보고 섰다가 중로에서 선형을 찾아볼 양으로 그 차실 바로 뒤에 달린 자기의 차실에 올라왔다. 영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아까 탔던 사람은 거의 다 내리고 새로운 승객이 거의 만원이라 하리만큼 많이 올랐다. 어떤 사람은 웃옷을 벗어 걸고, 어떤 사람은 창에 붙어서 작별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벌써 신문을 들고 앉았다. 그러나 흰옷 입은 사람은 병욱과 영채 둘뿐이다. 병욱은 자리에 앉아서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 영채더러,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앉았니?”

“㉢ 어째 남대문이라는 소리에 마음이 이상하게 혼란하여 집니다그려. 어서 차가 떠났으면 좋겠다.” 할 때에 벌써 종 혼드는 소리가 나고, “사요나라, 고키젠요우.” 하는 소리가 소낙비 같이 들리더니 차가 움직이기를 시작한다. ㉣ 어디서, “만세, 이형식 군 만세!” 하는 소리가 들린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귀를 기울인다. 또 한 번, “이형식 군 만세!” 하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 두 사람의 창밖으로 얼른한다. 그것은 모시 두루마기에 파나마 쓴 패였다. ㉤ 병욱은 아까 선형의 곁에 있던 사람이 형식인 것과, 형식이가 선형의 지아빈 줄도 짐작하였다. 그러나 아무 말도 아니하였다.

영채는 형식이란 소리를 듣고 문득 가슴이 덜렁함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아무쪼록 형식을 잊어버리려 하였으나 방금 같은 기차에 형식이가 탄 것을 생각하매 알 수 없는 눈물이 자연히 떨어진다.

- 이광수, 『무정』 -

36.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수적인 관점에서 동시대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 ② 비유법과 열거법 등 다양한 표현법을 통해 주제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 ③ 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변모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서술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작가 자신의 주장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 ⑤ 일상적 구어체에 가까운 산문적인 서술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3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 ‘여학생’은 상황 판단에 대한 무지로 자신이 희생양이 되었음을 한탄하고 있다.
- ② ㉡: ‘선형’은 현실 도피를 꿈꾸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로 묘사되고 있다.
- ③ ㉢: ‘영채’는 구시대적인 권위나 특권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형식’은 개화된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 ⑤ ㉤: ‘병욱’은 타인의 일에는 관여하기를 싫어하는 냉정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38. <보기>를 참고할 때, 위 글에 나타나 있는 ‘기차’의 서사적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일제 강점기에 기차는 우리 민족에게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경계선으로 다가온다. 또한 기차는 공포와 동경의 대상이 된다. 민중들이 기차를 탄다는 것은 생활 터전으로서의 고향 상실이라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였다. 반면 문명개화에 앞선 특권 계층들은 기차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동경하던 외국 유학을 하거나 서구 문물을 수용할 수 있었다. 김동인도 지적하였듯이 이광수의 소설에서는 ‘기차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무정』에서도 기차는 작품 구성의 주요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 ① 인물들의 사회적 계층과 위상을 보여 주는 수단
- ② 인물들에게 고향 상실감을 환기시켜 주는 매개체
- ③ 인물들의 만남을 통해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장소
- ④ 인물들이 지향하는 서구적인 근대 문명개화의 상징물
- ⑤ 인물들이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 출발을 하게 해 주는 장치

39. ㉤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를 설명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좌불안석(坐不安席)
- ② 간담상조(肝膽相照)
- ③ 전전반측(輾轉反側)
- ④ 침소봉대(針小棒大)
- ⑤ 절치부심(切齒腐心)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금은 ㉠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A]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B]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끝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옥도 켜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C]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꺾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 호미를 쥐어 다오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짚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D]

나는 온몸에 꽃내를 띠고

㉤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켰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E]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나)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

40.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관점에서 사물을 통찰하여 초월적 진리를 이끌어 낸다.
- ② 계절적 배경을 통하여 분위기와 주제 의식의 연관성을 높인다.
- ③ 여정에 따른 공간 변화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다양하게 드러낸다.
- ④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를 일부 행들의 끝에 배치하여 운율감을 자아낸다.
- ⑤ 직유적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여 대상의 모양이나 속성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20년대 중반에 일부 시인들은 민중의 참담한 상황, 그리고 노동에 기반한 민중의 생명력에 주목하면서 민중의 생활을 노래하였다. 이런 점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 ① [A]의 ㉠은 당시 민중의 참담한 상황을 나타낸 표현이군.
- ② [C]의 ㉡에는 민중의 생명력이, ㉢에는 노동을 중시하는 화자의 태도가 함의되어 있군.
- ③ [B]와 [D]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태도의 변화로 보아, [C]에는 민중의 실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도 내재되어 있군.
- ④ [B]의 ㉣에는 화자의 이상이, [D]의 ㉤에는 화자의 현실 인식이 투영되어 있군.
- ⑤ [A]와 [E]의 연관으로 보아, [B]~[D]에서의 화자의 행위는 민중의 처지를 바꿔 보려는 적극적 의지의 소산이군.

42. ‘성애꽃’에 대한 화자의 심미적 태도를 중심으로 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애꽃’은 새벽 차창에 피어나 있어. 화자는 시간과 공간이 지닌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 ② ‘성애꽃’은 시내버스를 탔던 사람들이 함께 피워 낸 것이야. 화자는 서민들의 공동체적 어울림에서 아름다움의 바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 ③ ‘성애꽃’은 은밀히 피어나는 것이야. 화자는 현실 상황에서는 아름다움이 은밀한 방식으로 탄생해야 한다고 생각해.
 - ④ ‘성애꽃’에는 누군가의 막막한 한숨이 담겨 있어. 화자는 사람들의 고통이 현실에서는 극복될 수 없는 것이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해.
 - ⑤ ‘성애꽃’의 한 잎을 지우고 화자는 친구를 떠올려. 화자는 회상을 통해 성애꽃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30대 중반의 정원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진사이다. 이제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던 어느 날, 정원은 단속 사진을 인화하러 온 주차 단속원 다림을 만나면서 그녀에게 서서히 끌리게 된다.

S# 56. 사진관 촬영실

사진기의 까만 프레임 내부에 다시 네모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거꾸로 상이 맺혀 있는 다림의 모습이 보인다. ㉠ 화면 밖에서 정원의 소리가 들린다.

정원 얼굴을 조금 왼쪽으로, 조금만 더, 턱 좀 내리고 ……

그때마다 다림은 조금씩 움직인다.

정원 살짝 웃으면 더 예쁘겠는데.

다림, 애써 웃으려 하지만 잘 안 되고 어색하다. 그래도 잠시 동안 화면을 보고 웃는데 정원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누른다.

S# 57. 상가 거리 (밤)

화장품 가게 안의 다림. 화장품을 고르고 있다. 이것저것을 신중하게 고르다 주인에게 값을 묻고는 선택을 망설인다. 끝내는 아무것도 사지를 못하고 화장품 가게를 나온다. 길가에 늘 어선 옷가게들의 쇼윈도를 보면서 걷는 다림. 신사복을 파는 가게 앞에서 발길을 멈춘다. ㉡ 남자 옷을 바라다보는 다림. 그녀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

S# 78. 사진관 안 (저녁)

다림 문을 열고 들어오면 텅 빈 사진관. 소파에 앉는 다림. ㉢ 곧 일어서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기 시작한다. 정원이 비닐 봉투를 들고 들어온다. 다림을 보고 놀라는 정원. 다림이는 평소의 옷차림과는 다른 모습이다.

정원 화장했네?

다림 왜, 보기 싫어요?

정원 아니.

다림 ……

잠시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중략)

다림 내가 얘기 안 했었나? ○○월드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정원 ……

다림 도널드 인형 쓰고 애들하고 놀아주는 애예요.

정원 그거 굉장히 더울 텐데 ……

다림 ○○월드 가면 개가 공짜로 표 얻어다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

정원 근데?

다림 그냥 그렇다구요. 언제 한번 가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나야 말이죠.

정원과 다림 잠시 말이 없다.

S# 79. 놀이 공원 - 롤러코스터 (낮)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정원과 다림. 정원과 다림의 아우성치는 모습.

㉤ 정원의 시점으로 달리는 롤러코스터에서 보이는 풍경. 심하게 흔들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이 고속 촬영으로 흔들림과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며 화면도 어두워진다.

S# 80. 벤치 (낮)

정원과 다림은 하드를 먹으며 말없이 앉아 있다. ㉥ 사이를 두고 앉은 둘의 모습은 어색해 보인다.

S# 81. 학교 운동장 (낮)

멀리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정원과 다림의 모습이 보인다. 운동장을 달리고 있는 다림과 정원. 정원은 얼마를 못 가서 자리에 멈춰 서 가쁜 숨을 고르고 있다. 정원을 뒤에 두고 달리는 다림. 혼자서 운동장을 달리는 다림. 운동장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정원. 다림, 정원 앞으로 숨을 헐떡이며 다가온다.

- 오승욱·허진호·신동환 각본, 『8월의 크리스마스』 -

4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사진이라는 매개물이 두 인물의 관계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② 연속된 장면들을 인과적 관계로 배열하여 갈등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사진관, 상가 등 일상적 공간을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배치하여 그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행위나 표정 등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대사에 비해 지시문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면 속 ‘다림’의 모습과 화면 밖 ‘정원’의 목소리의 병치를 통해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제시된다.
- ② ㉡: ‘다림’의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음이 암시된다.
- ③ ㉢: ‘다림’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정원’을 향한 친밀감이 형성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 ④ ㉣: ‘정원’의 시선에 포착된 풍경을 통해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가 드러난다.
- ⑤ ㉤: ‘정원’과 ‘다림’의 물리적 거리를 통해 서로에 대한 감정 표현을 주저하는 인물의 태도가 드러난다.

45. S#81을 위 글에 제시된 대로 영화화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교 운동장 장면과 인물의 과거 회상 장면이 겹쳐지도록 공간을 설정한다.
- ② 활기찬 ‘다림’과 병약해 보이는 ‘정원’이 대비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한다.
- ③ 조연들이 운동장을 함께 뛰는 가운데 주인공들의 모습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한다.
- ④ ‘다림’ 역을 맡은 배우는 흐트러짐 없이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달리기를 마치도록 한다.
- ⑤ 화면 속 날씨는 ‘흐린 날’로 설정하여 두 인물의 우울한 상황이 드러나도록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